

HOT5

윤지오 “장자연 사건 증언자 더 나와야”



연기자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연예계 동료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윤지오는 28일 오전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저보다 더 친했던 동료들이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이미지 외에 여자 연기자 5명이 더 있다”고 말했다.

연기자 고준희, 승리 관련 루머 부인



연기자 고준희가 승리와 연관된 루머에 대해 직접 부인했다. 고준희는 일부 팬들이 자신의 SNS에 ‘뉴욕 여배우 맞나?’라는 댓글을 남기자 27일 새벽 “아니예요”라고 답했다. 23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승리가 2015년 일본 사업가에 대한 접대를 준비하며 최종훈과 ‘뉴욕으로 간 여배우’를 언급한 내용을 공개해 의혹이 일었다. 방송 후 일부 누리꾼이 해당 여배우로 고준희를 지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 故 신성일 유품 기획전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의 유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한국영상자료원은 “4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청춘 신성일, 전설이 되다’ 기획전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신성일의 일생과 그가 한국영화사에 남긴 전설적인 기록을 사진, 영상, 트로피 등 유품으로 소개한다. 1964년 엄영란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릴 당시 이미지와 영상, 결혼 앨범도 최초로 공개된다.

강한나, 판타지오 전속계약 분쟁 끝



연기자 강한나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했다. 28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강한나는 2월2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판타지오 전속계약 유효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판정 이후 강한나와 오해를 풀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며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강한나는 지난해 3월 판타지오 최대 주주 중국계 J.C그룹으로 바뀐 뒤 이들이 창업자 나병준 공동대표를 해임하자 전속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보였다.

마마무 콘서트 ‘포시즌’ 2분만에 매진

걸그룹 마마무가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28일 마마무의 홍보사 이제컴퍼니에 따르면 4월19일~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네 번째 콘서트 ‘포시즌(4Season) F/W’가 27일 오후 8시 티켓 오픈 2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EBS 다큐 ‘극한직업’ PD들이 말하는 극한직업 11년



EBS ‘극한직업’ 심예원 CP(왼쪽)와 임우식 PD는 “영화 ‘극한직업’이 흥행해 우리(프로그램)도 입소문이 났다”며 웃었다. 두 사람은 11년간 방송한 장수 프로그램을 위해 “현장의 진솔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영화 속 마약반처럼, 우리 극한 PD들”

EBS 심예원 CP

총 5팀 구성...제작진만 20명 넘어 비연예인 찍다보니 세팅부터 험난 카메라 부서지고 배편 끊기 일쑤

엔미디어 임우식 PD

영화 덕에 입소문...조카도 알려주요 무엇보다 섭외가 수월해서 좋아요 예능 유머코드 활용엔 우려되기도



EBS 교양프로그램 ‘극한직업’의 심예원 CP(오른쪽)와 임우식 PD가 인터뷰에 앞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김민성 기자

1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개봉영화 흥행 2위에 오른 ‘극한직업’,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치킨 집을 위장 개업한 경찰 마약반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덕분에 새삼 주목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11년이나 앞서 그 제목을 내건 ‘원조’,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의 제작팀이다. 그 주역인 심예원 CP와 임우식 PD는 “영화 덕분에 프로그램 입소문이 더 났다”며 웃었다.

하지만 이들이 들려준 ‘극한직업’ 제작진의 현실은 영화 속 경찰 마약반원들 만큼이나 말 그대로 “극한”이었다. 배편이 끊겨 ‘강제 연장 촬영’을 하고, 생생한 장면을 얻어내느라 ‘고프로’(소형카메라)를 한 자리에서 세 대나 부수기도 했다.

“1000만 영화와 ‘원원’한 것 같아 우리도 영광이에요. 제목이 주는 힘이 참 세네요, 하하하!”

● “영화 덕분에 우리도 입소문, 영광”

2008년 2월 시작한 ‘극한직업’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엔미디어, KP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제작한다.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에서 만난 심예원 CP와 엔미디어 임우식 PD는 “우리를 뺀 PD들은 전부 촬영 때문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못 왔다”며 아쉬워했다. 심 CP는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의 제작 관리를 맡고 있다. 임 PD는 2016년

부터 ‘극한직업’에 참여해왔다.

“총 다섯 개 팀이 ‘극한직업’을 찍는다. 한 팀당 두 명의 PD와 작가, 조연출이 제작을 지휘한다. 여기에 나머지 스태프를 포함해 제작진은 스무 명이 넘는다.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은 비연예인을 찍어야 하니 세팅부터 공을 들여야 해 인력이 꽤 필요하다. 섭외도 만만치 않다. ‘우리 극한직업 아니예요’라며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 촬영 나갔는데 ‘볼 것도 없는데 왜 왔냐’며 의아해하기도 한다.”(심예원 CP, 이하 심)

고된 일정으로 쉴 틈 없이 바쁜 이들에게 1월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은 신기함 그 자체였다. 심 CP와 임 PD 모두 “이제야 사람들이 ‘네가 그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였어?’라고 놀란다”며 웃음을 지었다.

“바로 어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조카와 저녁식사를 하는데 ‘영화 덕분에 프로그램을 알았는데 삼촌 이름이 연출자로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웃음) 다른 PD들도 요즘 부쩍 ‘프로그램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더라. 시청층도 한층 넓어진 느낌이고,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돼 좋다. 다만 예능 속 유머코드도 활용될 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나올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임우식 PD, 임)

● “출연자도 PD들 걱정, ‘그쪽이 더 극한’”

심 CP와 임 PD는 프로그램이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보다 수월해진 섭외”에서 체감한다고 한다. “그게 뭔데”라며 외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극한직업”을 알아보고 경계를 푼다.

“아이템 선정, 출연자 섭외, 연출의 촬영 기간까지 한 회 방송을 위해 거의 한 달을 쓴다. PD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그만큼 많다. 출연자들은 우리에게 ‘오해가 많지 더 극한직업인 것 같은데’라고 한다.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이지, 출연자가 ‘거기에 이런 직업이 있다’라며 추천을 해주기도 한다.”(심)

배 위에서 2박3일을 보내고, 심마니를 따라 산을 뛰어다니느라 인내심과 체

력 모두 정점을 찍은 ‘극한직업’ PD들. 그런 고생 끝에 이제 주변에선 “일등 신랑감”으로 꼽히게 됐다며 임 PD는 웃었다. 그 중에서도 “뱃말이 없는 사람이 최고”라며 심 CP는 웃음을 보였다.

가장 힘들었던 현장을 물으니 임 PD는 단번에 2017년 9월 방송된 ‘독종을 찾는 사람들’ 편을 꼽았다.

“불개미, 흰개미, 말벌 등을 잡으러 다니는 분들을 따라다녔다. 한여름에 보호장비를 쓰고 촬영을 하는데, 생업이 걸린 출연자들의 작업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다. 산 하나를 타면 그대로 ‘방전’이 돼 PD들이 서로 배터 타치를 하며 촬영했던 기억이 난다.(웃음)”(임)

다섯 번 넘게 등장한 단골 소재인 잣채취 현장에서는 새 앵글을 잡느라 장대 끝에 소형카메라를 다는 모험까지 했다고 돌이킨 임 PD. 심 CP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많이 등장해 이제 남은 앵글은 ‘물고기 입 속’만 남았다는 농담도 한다”며 생생한 한 장면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고충을 드러냈다.

● “세상의 모든 극한직업을 다룰 때까지!”

오랜 방송 기간으로 웬만한 직업군은 다 다뤘을 것 같지만, 심 CP와 임 PD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상에 극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는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직업인들이 ‘예비 출연자’다.

“새로 생겨난 것보다 이미 다른 직업군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고민을 오래도록 한다.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연출 기법 다양화 등을 시도하려 노력한다. 이런 고민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큰 힘이라 본다.”(임)

심 CP는 “현장의 진솔함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마음가짐”이 ‘극한직업’의 장수 비결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직업을 보는 시선의 담백함, 본질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을 앞으로도 잃지 않으려 한다”며 다부진 각오를 덧붙였다.